

# 北韓의 觀光資源開發과 觀光 經營業의 開放 可能性

A Study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and Tourism  
Business Management Opening Possibility of North Korea

金 仁 鎬\*  
(Kim, In Ho)

## 目 次

- |                      |                          |
|----------------------|--------------------------|
| 1. 序 論               | 3. 北韓의 觀光客 取用態勢의 前提條件 未備 |
| 2. 北韓의 觀光資源現況 및 開發實態 | 가. 交通部門                  |
| 가. 平壤圈               | 나. 旅行地域의 統制              |
| 나. 金剛山圈              | 다. 旅行社의 自主性, 創意性 缺如      |
| 다. 妙香山圈              | 4. 北韓의 觀光開發과 觀光旅行의 當面課題  |
| 라. 白頭山圈              | 가. 北韓 周邊與件의 變化           |
| 마. 元山 松濤園圈           | 나. 北韓의 異質的 體制와 思考        |
| 바. 開城市               | 다. 觀光旅行 雰圍氣 造成의 先決要件     |
| 사. 夢金浦               | 5. 結 論                   |
| 아. 信義州市              | 參考文獻                     |

\* 尙志大學校 經商大學 觀光經營學科 轉任講師

## 1. 序 論

北韓은 觀光<sup>1)</sup> 産業에 對해 “浪費的이고 安逸한 生活을 追究케 하는 非生産的인 것”<sup>2)</sup>으로 보고 觀光産業自體를 否認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觀光産業은 가장 적은 投資를 하면서도 가장 많은 外貨를 獲得할 수 있고 觀光産業을 通하여 北韓을 海外에 宣傳할 수 있다는 認識의 轉換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北韓 最高人民會議가 1984年 9月8日 채택한바 있는 「合營法」<sup>3)</sup>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總 5章 26條로 된 이 法의 제1조에는 “世界의 여러 나라들과의 經濟 技術交流와 協調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朝鮮노동당과 公和國 政府의 일관한 對외 經濟政策이다. 朝鮮民主주의 人民公和國은 公和國의 영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合營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合營법의 목적을 밝혔고, 제2조에서는 “朝鮮民主주의 人民公和國에서의 合營은 公業·건설·운수·과학기술·觀光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로 合營분야를 明示하였다.

이 法의 發表 以後 아직까지 큰 成果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호텔, 커피숍, 백화점, 병원등 서비스 부분은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관련 合作企業을 보면 羊角島(1985년, 프랑스 중단) 국제호텔, 蒼光 커피숍(1985, 일본), 평양 골프장(1986, 일본), 은하수 식당(1986, 일본), 동해관(1987, 일본), 평양 냉면관(1987, 중국), 도문江 식당(1988, 중국) 등이 있다.<sup>4)</sup> 海外合作對象國은 현재까지 일본(조총련), 소련, 중국, 프랑스가 있으며, 일본 조총련을 통한 자본유치가 많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관광부문에 있어 막대한 시설자금이 필요하나 투자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합작 투자를 提議해오는 외국투자자들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조총련 資金으로 食堂,

1) 北韓에서 發刊된 「현대조선말사전」에 “觀光이란 다른 地方이나 다른 나라의 自然風景, 名勝古蹟, 人民經濟의 發展面貌, 歷史遺蹟 등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定義되어 있다.

2) 金永圭 “北韓의 觀光資源 現況 및 開發實態”, 國土統一院, 1985, 12, p. 5.

3)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年~1985年」, 1986, pp. 113~114.

4) 上掲書, p. 70.

소규모 호텔 건설에 그치고 있다.

오랫동안 否定的인 側面에서만 認識되어져오던 觀光產業에 對한 北韓當國의 變化의 背景은 觀光產業自體가 外貨를 獲得하는 가장 바람직한 產業이라는 認識 外에도 北韓地域에는 外國의 觀光客을 誘致할만한 比較的 풍부한 觀光資源을 保有하고 있는데다 外國人의 觀光要求가 增大되고 있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히 北韓當國이 觀光產業에 關心을 두게된 근거에는 韓國의 觀光產業이 급속도로 進行되고 있고 韓國에 對한 外國人의 觀光選好가 높아지고 있음을 意識한 것과 韓國側이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南北韓 共同觀光開發을 提議한 것을 意識하고 있다는 事實을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現在 北韓에는 潛在力이 풍부한 自然景勝資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效果的으로 開發할 수 있는 體制가 갖추어있지않아 死藏되거나 未公開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北韓의 觀光資源現況과 觀光政策을 살펴봄으로써 觀光을 通한 南北交流의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北韓의 觀光資源現況 및 開發實態

山岳地域이 많은 북한에는 훌륭한 觀光資源이 있으나 觀光政策의 未熟, 投資에 필요한 技術과 資本의 不足, 公산주의식 思考에 立却한 勞動者指向的 餘暇政策(勞動管理政策의 범주에 속하는 休息, 休養 施設과 空間調成)에 치우쳐 진정한 觀光文化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觀光政策의 樹立에 制度的 制約이 수반되고 있다. 유희, 레크레이션, 가족관광, 취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環境에 있는 북한에서는 觀光開發의 方向이 單調롭고 劃一的인 社會主義 政策實現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開發의 意味附與를 社會主義 建設과 勞動者 生産性 向上을 爲한 手段에 두고 있다. 즉, 주체사상관철을 위한 하나의 道具로 利用하고자 하는 特性을 띠고 있어 혁명사적지(김일성 관련 偶像화 사업을 위한 혁명교육장소 조성 및 순례, 참배장소로 활용)에 集中投資하고 傳統文化 遺産管

5) 上掲書, 同面.

理와 自然資源開發에는 소홀하다. 白頭山開發의 경우에도 우리 民族의 聖山이고 韓民族의 精神的 求心點이 되는 엄숙한 歷史的 事實을 전연 무시하고 오히려 김 일성의 抗日鬪爭의 장소(소위 혁명사적지)로 영똥하게 歪曲시켜 수많은 捏造된 전적비, 전투지역, 아지트 흔적을 조작하고 있다. 白頭山開發 및 白頭山周邊地 域 開發目的이 觀光客 誘致에 있지 않고 혁명전적지 開發에 두고 있으며 全住民 으로 하여금 白頭山 登頂, 行軍을 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등산, 등반, 산악관광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內容이다. 白頭山에 그치지 않고 妙香山, 九月山, 金剛山에도 偶像化와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아 觀光開發이 歪曲된 方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널리 통용되는 觀光의 原理, 形態가 北韓에서 는 取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北韓式 觀光開發은 自由世界 觀光客의 誘致 滯留, 즐거운 관광을 保障하는 觀光需要와 基本的 欲求充足은 不可하다고 볼 수 있다. 北韓에서 對外的으로 紹介하는 觀光course에는 어김없이 김일성 偶像化와 관련있는 기념물(주체탑, 개선문, 김일성 생가 등)을 들리거나 參與토록 유도하고 있다.

個人崇拜 對象物이 外國觀光客에게 宣傳資料가 되고 觀光資源이 된다는 사실은 人類觀光文化發展에 逆行하는 處事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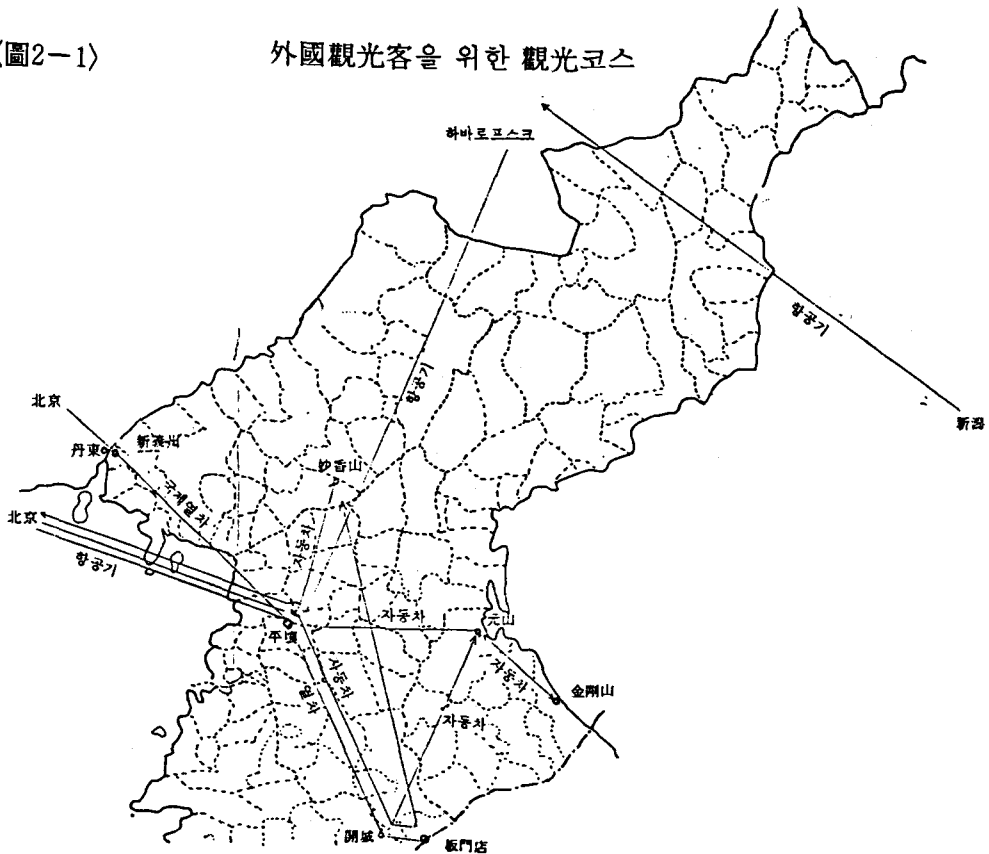
〈表 2-1〉 北韓의 外國관광객 대상 地方觀光코스

일 정	관 광 코 스
〈서유럽관광객 대상〉 7박8일	北京 — <sub>항공</sub> 平壤(2박, 고려호텔투숙, 萬景臺, 主體塔, 凱旋門, 巧藝劇場(서커스) 관람) — <sub>버스</sub> 開城(2박, 子南山 호텔, 개성시내관광, 板門店관광) — <sub>버스</sub> 妙香山(2박, 妙香山관광호텔, 普賢寺와 國際親善展覽館관람) — <sub>버스</sub> 平壤(1박, 고려호텔) — <sub>항공</sub> 北京
6박7일	北京 — <sub>항공</sub> 平壤(2박, 고려호텔, 미술박물관, 巧藝劇場 관람, 千里馬동상, 개선문구경) — <sub>버스</sub> 開城(1박, 개성, 관문점관광) — <sub>버스</sub> 元山(1박) — <sub>버스</sub> 金剛山(2박) — <sub>버스</sub> 平壤

5박6일	壤(1박, 고려호텔) ————— 北京 國際열차 北京 ————— 平壤(2박, 고려호텔, 萬景臺, 主體塔, 예술 항공 공연관람, 미술박물관 관람) ————— 開城(2박, 子男山호 버스 텔, 개성시관광, 朴淵폭포관광, 恭愍王陵관람, 판문점 관광) ————— 平壤(1박) ————— 北京 버스 항공
〈일본관광객 조총련 대상〉	新潟(일본) ————— 하바로프스크(시베리아) ————— 平壤 항공 항공 ————— 金剛山, 妙香山, 開城, 元山, 기타(공장, 농장, 버스 김일성 우상화시설·장소)
〈중국관광객〉	丹東(만주압록강하구) ————— 新義州 압록강철교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연구소)

〈圖2-1〉 外國觀光客을 위한 觀光코스



〈北韓內 外國人觀光旅行 코스〉<sup>6)</sup>

\* 2박3일 일정 (평양 및 근교)

제1일 : 시내관광, 모란봉

제2일 : 시내관광(만경대, 대성산사적지, 지하철, 서커스관광)

\* 3박4일 일정 (평양)

제1일 : 시내관광

제2일 : 중앙역사박물관, 만경대, 만경대종합놀이터, 서커스관광

제3일 : 모란봉, 대성산사적지, 쇼핑

제4일 : 출국

\* 4박5일 일정 (평양, 개성)

제1일 : 시내관광

제2일 : 시내관광(만경대, 미술관, 대성산사적지, 서커스관광)

제3일 : 개성관광(공민왕능, 사적지, 판문점)

제4일 : 개성-평양(인민대학습당, 역사박물관, 교육시설)

제5일 : 출국

\* 5박6일 일정 (평양, 금강산)

제1일 : 시내관광

제2일 : 시내관광(만경대, 종합놀이터, 지하철, 교육시설, 대성산사적지, 서커스관광)

제3일 : 평양-원산(원산관광-송도원, 해수욕장, 侍中湖)

제4일 : 금강산관광(九龍淵, 三日浦)

제5일 : 금강산-원산-평양(東明聖王陵관광)

제6일 : 출국

\* 6박7일 일정 (묘향산, 개성)

제1일 : 평양시내관광

제2일 : 평양시내관광(만경대, 종합놀이터, 교육시설)

제3일 : 묘향산관광(보현사, 묘향산)

제4일 : 묘향산-평양(묘향산친선전람관)

- 제5일 : 평양관광(지하철, 식물원, 미술관)  
제6일 : 평양-개성(개성인삼밭, 판문점)  
제7일 : 개성-평양, 출국
- \* 15박16일 일정(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산-남포)
- 제1일 : 평양도착  
제2일 : 평양시내관광(중앙역사박물관 관람)  
제3일 : 평양-원산, 원산관광(송도원 해수욕장)  
제4일 : 원산-금강산  
제5일 : 금강산 관광(九龍폭포)  
제6일 :        :        (三日浦)  
제7일 : 금강산-원산(원산-송도원해수욕장)  
제8일 : 원산-평양-남포(남포-서해갑문관광)  
제9일 : 평양-묘향산(묘향산-만폭동관광)  
제10일 :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평양도착  
제11일 : 평양시내관광(만경대, 종합놀이터, 교육시설)  
제12일 : 평양-개성(개성-사적지, 인삼밭, 판문점)  
제13일 : 평양시내관광(김일성우상화시설, 서커스관광)  
제14일 :        :        (민속박물관, 대성산사적지)  
제15일 :        :        (인민대학습당, 刺繡연구소)  
제16일 : 평양출발

6) 조선국제여행사, 「Tourism in DPR of Korea (1989), Guide to Pyongyang (1989)」 선전내용에 의거.

最近의 北韓資料에서는 옛 文化史蹟(寺刹, 塔, 建物, 文化財)를 복구하고 보수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장소를 起點으로 소위 人民을 위한 文化休息場<sup>7)</sup>(일종의 근로자 휴게시설, 간이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편의시설)確保와 階級鬭爭의 歷史的 現場教育場所(봉건유산의 잔재현장보존의미)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文化史蹟이 오직 遺蹟地(先史時代 遺蹟)와 史蹟地(1900년대이후 김일성, 공산주의 활동과 관련 있는 장소)開發, 保全에 힘쓰나 中世, 近世時代의 文化遺產은 封建時代遺產이라고하여 처음부터 排擊하고 있다.

畸刑的이고 客觀性이 缺如된 文化政策, 開發政策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들과 相當한 거리감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民族文化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民族文化政策이나 文化遺產을 바탕으로 한 文化觀光이 存在할 수 없음은 自명한 事實이다.

近年에 補修한 寺刹을 보면 妙香山, 普賢寺, 봉산군 成佛寺, 순천군 安國寺, 안변 석왕사, 금강산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 표훈사 등이 있고, 옛建物로는 義州 統軍亭, 평양 乙蜜台, 浮碧樓, 보통문 등이다. 그리고 관서팔경(德光亭, 白佯樓, 降仙樓, 藥山, 東台, 東林 瀑布, 統軍亭, 人風樓, 洗劍亭)도 近年 復元하여 勤勞者들의 文化休息터로 利用되고 있다.

1980年代 들어서면서 관광개발에 관심을 보여 平壤, 白頭山, 妙香山, 金剛山, 元山, 松濤園 開發에 착수하였고,<sup>8)</sup> 기존 관광행정전담기관인 旅行管理局을 1988年末에 觀光總局으로 擴大改編, 世界에 北韓의 觀光을 알리는 데 나서기 始作하였다. 1987년 9월에 世界觀光機構(W. T. O.)에 가입하였고,<sup>9)</sup> 1988年9월에 平壤에서 北韓에서는 처음으로 世界遊覽人大會를 開催하였다. 觀光客을 통한 對外宣傳을 爲해 1987年 7월에 9個地域(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청진, 남포, 원산, 함흥, 개성, 판문점)을 관광지역으로 宣布하였다.<sup>10)</sup>

北韓은 90年代初에 年間 觀光客 10万名 誘致를 目標로 기반시설과 관광시설

7) 北韓研究所, 前掲書, p. 80.

8) 上掲書, 同面.

9) 韓國觀光公社, 「北韓地域 觀光資源」1989, p. 86.

10) 上掲書, 同面.



擴充에 投資하고 있다. 現在 外國관광객이 流入되는 Route는 유럽-北京-平壤 코스, 日本(니이가타)-蘇聯(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平壤-北京(소위 循環觀光루트, 1988, 9月 旅行) 루트가 있다. 外國관광객 誘致는 年間3萬名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며, 主市場은 日本(주로 조총련소속 교포)에 의존하는 형편이며, 서구 관광객은 연간 5천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表2-2 참조)

〈表 2-2〉 일본거주 조총련계 교포의 북한 여행자(1978~1987)

연 도	북한 여행자 (명)	신 장 율 (%)
1978	1,302	55.9
1979	1,951	49.8
1980	2,825	44.8
1981	4,561	61.4
1982	4,646	1.9
1983	4,757	2.4
1984	4,616	-3.0
1985	6,117	32.5
1986	7,995	30.7
1987	9,070	13.4

(자료 : 일본 법무성 통계자료 의거)

현재 북한이 관광개발을 착수하고 있는 地域은 다음과 같다.<sup>11)</sup>

### 가. 平壤圈

大同江, 普通江, 大成山, 창광산, 等 景觀地域 以外에 김일성 偶像化와 관련되는 萬景台, 개선문(높이60m), 主體思想塔(높이 170m), 戰爭記念館, 平壤地下鐵(지하150~200m 전장34Km), 平壤産院(산부인과병원, 침대 4000개), 9.15託兒所(1천명 수용), 人民大學習堂(종합도서관), 金日成 綜合大學(학생수 12000명) 人民文化宮殿(회의장, 교육장, 편의시설), 만수대예술극장(관람석 4000석), 平壤學生少年宮殿(13층 건물, 극장, 체육관 等) 蒼光院(종합목욕탕), 萬景台遊藝場(대공원)

11) 金永圭, 前掲論文을 참고하여 자료를 추가함.

等도 外國人들에게 宣傳用으로 紹介되는 곳이다. 그리고 觀光客利用施設로는 專門 飲食店인 玉流館(전통요리전문식당)과 清流館(종합식당), 國立巧藝劇場(서커스 공연장)이 있다. 文化觀光地는 牡丹峰, 을밀대 등이 있다. 현재 건설중인 柳京호텔(別名: 一空五호텔105층, 3000실)도 새로운 선전대상으로 삼고 있다.

#### 나. 金剛山圈

觀光客의 接近性이 비교적 용이한 外金剛區域의 循環登山路(동석동-세존봉-천선대-구룡연-만물상)擴張, 溫井里 호텔(12층, 조총련 자금으로 건설), 溫井旅館(7층), 金剛山-元山구간 고속도로 포장(完了) 철도부설이 포함된다.

#### 다. 妙香山圈

香山郡 香山邑을 妙香山地區의 觀光據點都市로 定하고 妙香山 周邊에 宿泊施設, 편의시설, 휴게소, 등산로(상원동-만폭동 구간)開發, 普賢寺 보수, 八萬大藏徑 보존각 신축, 妙香山 觀光호텔(15층) 건설이 이루어졌다.

#### 라. 白頭山圈

백두산을 소위 “革命的 聖山”으로 지칭하여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있는 施設物 建設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백두산 등산로 개발, 接近路 포장, 三池淵 호반 숙박시설, 휴양시설, 스케이트場을 건설하였다.

백두산은 觀光名所이지만 내륙험준한 고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북한에서는 백두산과 그 주위지역을 관광지, 혁명시설지로 조성하고자 개발을 해오고 있다. 백두산 등정에 이르는 곳까지 도로, 철도, 간이공항(三池淵 공항)을 만들어 여행자와 革命史蹟地 參拜者를 위해 山間 등반로를 開發하였다. 開發된 관광위락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철도부설

三池淵線(보천가림-삼지연못가), 소위 觀光線이라고 하여 旅行者, 參拜客 輸送을 하고 있다. 철도구간 56Km 中間驛 10個所, 狹軌이다.

2) 三池淵 湖畔

백두산 아래에 3곳의 自然湖가 있으며 주위는 광대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주변에 학생소년궁전, 스케이트장, 선수촌, 숙박시설, 야영장이 있다.

3) 三池淵 空港

簡易 飛行場이며 輕飛行機와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을 程度, 不定期 路線

4) 觀光케이블카 施設

백두산 頂上에서 天池쪽으로 케이블카 부설, 地上軌道式으로 設置

5) 道路 鋪裝

三池淵—白頭山 구간 도로포장, 觀光道路로 利用

마. 元山 松濤園圈

元山市를 “國際規模의 觀光, 休養都市”로 開發한다는 計劃도 세우고 이른바 東方式公園(多目的 觀光施設, 休憩所)建設, 明沙十里 海水浴場 擴張, 野營場, 競馬場, 풀장, 휴게소, 體育施設을 수용하였고, 大規模 水族館, 케이블카, 쇼핑센터 건설을 추진중이다.

北韓은 元山市를 「港口文化休養都市」로 開發하기 爲해 都市經營部가 都市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國際港口都市로서 面貌一新을 한다는 名分아래 都市再開發式 建物 新築, 아파트 建設, 都市美化作業, 元山驛舍 新築(기존 驛舍보다 10배 크기 규모, 연건평 35, 000㎡, 건축면적 14, 500㎡), 觀光旅館, 道路擴張建設을 하고 있다.

이미 開發한 곳은 明沙十里 해수욕장, 松濤園(面積 427만㎡, 海岸慰樂園地, 東方式公園)이 있다. 송도원內에는 국제소년야영장, 동물원, 식물원, 연못,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元山은 안변 석왕사의 入口이고 金剛山으로 떠나는 出發地이므로 觀光都市로서 面貌를 갖추는데 힘쓰는 듯하다. 元山驛舍를 새로이 짓는 목적은 늘어날 여행자 수송에 對備, 편의시설, 외국인 여행자 대기실, 일반인 대기실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 開城市

高麗王都 個性의 文化遺產, 史蹟을 發掘, 復元하고 保存하기 爲하여 近年에 觀光有關部門에 投資하고 있다. 外國觀光客이 開城과 板間店을 찾는 것을 계기로 觀光地로 가꾸는 데 關心을 갖고 있다.

1) 史蹟復元, 補修

고려왕궁터(만월대), 고려 城郭, 成均館, 南大門, 善竹橋

2) 開城民俗旅館

傳統기와집 20棟을 管理保存, 觀光旅館으로 活用

3) 開城歷史博物館

古代國家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時代史의 文化發展, 生活道具發展資料 展示

4) 市內 觀光道路 鋪裝

開城—朴淵瀑布(동북쪽) 구간, 開城—恭愍王陵(서북쪽) 구간에 도로 포장함.

5) 觀光對象地

恭愍王陵, 成均館, 善竹橋, 인삼밭, 朴淵瀑布, 관음사.

## 사. 夢金浦

황해도 서해안에 자리잡은 몽금포는 옛부터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다. 명승지 제9호로 指定하여 현재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용연군 장산곶위에 위치하고 있는 긴 沙丘이다. 東海岸의 明沙十里와 함께 해안 沙場으로 有名하다.

주변경관은 흰모래, 푸른 松林, 푸른바다, 海棠花가 있어 해안휴양지로 開發한다면 충분한 潛任性이 있다. 이곳의 모래는 질이 좋아 珪沙로 쓰이고 있다. 몽금포 남쪽에 이와같은 天然與件을 갖춘 九美浦가 있어 이 두곳을 연계개발하면 서해안 관광지로서 有望하다. 동북쪽으로는 九月山, 동쪽으로는 長壽山(재령군), 首陽山(벽성군), 石潭九曲(벽성군)이 있다.

## 아. 新義州市

중국 만주를 마주보고 있는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시는 중국국경도시이며 북한으로 들어오는 關門都市로서 都市再開發과 現代都市로서 가꾸고 있다. 中國의 旅行者들이 압록강을 건너 新義州까지 올 수 있도록 開發하였으나 이곳을 벗어난 다른

곳으로의 旅行은 許容되지 않고 있다. 신의주시와 압록강을 연결시키기 위해 運河(水路)建設, 철도와 도로의 建設, 文化施設을 受容하여 새로운 都市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既存 新義州市 南쪽에 새로이 개발되는 區域을 南新義州市로 부르고 있다.

<表 2-3>

北韓地域 觀光資源評價

지 역	북한측 공개자원	한국측 평가 유망자원
함경북도	○ 兩江道 구역 白頭山, 天池, 三池淵 ○ 鏡城(온천관광지) ○ 七寶山	○ 白頭山, 天池, 三池淵 ○ 朱乙온천, 鏡城온천지구 ○ 七寶山(內七寶, 海七寶, 外七寶) ○ 長連湖(漁郎郡)
함경남도	○ 咸興市 麻田 해안관광지	○ 赴戰湖 호반관광지 ○ 龜景台(咸興市) ○ 千佛山(榮光) ○ 學士台(利原) ○ 遮日峰(赴戰郡)
강 원 도	○ 元山市(강원도에 편입) 松濤園(해수욕장, 위락 시설, 東方式공원, 동물원, 식물원, 호텔) ○ 金剛山 外金剛, 海金剛, 三日浦	○ 松濤園 ○ 明沙十里 ○ 國島 ○ 鶴浦 ○ 侍中湖(현江東浦) 관광휴양지 ○ 小洞延湖(천아포) ○ 外金剛(三日浦) ○ 海金剛(총석정) ○ 金蘭山 ○ 新金剛 ○ 內金剛 ○ 王防峽 산간휴양지(洗浦群) • 추가령지구대
평안북도	○ 慈江道 구역 • 소개없음 ○ 東林폭포(東林郡) ○ 妙香山(春山郡) • 普賢寺, 팔만 대장경 天神폭포	○ 洗劍亭(滿浦市) ○ 仁風樓 ○ 五佳山 동식물보호구역 ○ 統軍亭(의주, 관서팔경) ○ 靑山八景(昌城) ○ 朔州八景(朔州) ○ 樂山東台(寧邊郡) ○ 九十九曲(寧遠郡) ○ 妙香山(香山郡) ○ 龜州八景(州市) ○ 龍原동굴(价川郡) ○ 白頭大窟(球場郡) ○ 동룡굴(球場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上草동굴 (香山郡)</li> <li>○ 꽃동굴 (价川郡)</li> </ul>
평안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慈母山 (順川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慈母山城</li> <li>• 慈母由 동식물보호구역</li> </ul> </li> <li>○ 降仙樓 (成川郡, 관서팔경)</li> <li>○ 香楓樓 (成川郡)</li> <li>○ 綾城八景 (江東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三十六洞天</li> <li>• 淸溪동굴 (大林山)</li> </ul> </li> <li>○ 東明聖王陵 (中和郡)</li> <li>○ 고구려 古墳郡 (평양시 江西)</li> </ul>
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牧丹峰</li> <li>• 乙密台, 浮碧樓</li> <li>• 大城山城</li> <li>• 普通江</li> <li>• 大同門</li> </ul> </li> <li>○ 南浦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臥牛島 海수욕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練光亭 (관서팔경)</li> <li>• 牧丹峰</li> <li>• 乙密台, 浮碧樓</li> <li>• 大城山城</li> <li>• 安鶴宮地 (고구려왕성)</li> </ul> </li> </ul>
황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海州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首陽山</li> <li>• 兄弟島관광지</li> </ul> </li> <li>○ 夢金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九月山 (殷栗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을팔경, 貝葉寺</li> </ul> </li> <li>○ 正方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正方山城 (黃州郡)</li> <li>• 成佛寺</li> </ul> </li> <li>○ 長壽山 (載寧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洞十二曲</li> </ul> </li> <li>○ 石潭九曲 (碧城郡)</li> <li>○ 夢金浦 (長淵郡)</li> <li>○ 꽃재굴 (花窟, 長淵郡)</li> <li>○ 塔洞山 동물보호구역 (瑞奧郡)</li> <li>○ 豐川八景 (과일郡, 옛松禾)</li> <li>○ 花山八景 (安岳郡)</li> <li>○ 鳳山十二景 (鳳山郡)</li> <li>○ 大角山 동물보호구역 (遂安郡)</li> <li>○ 延白온천지구 (延白郡)</li> <li>○ 首陽山 (海州市)</li> <li>○ 兄弟島 (海州市)</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城 직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恭愍王陵</li> <li>• 朴淵폭포</li> <li>• 觀音寺</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成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聖居山 (박연폭포)</li> <li>• 五冠山</li> <li>• 고려왕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成均館</li> <li>• 板門店</li> <li>• 고려인삼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文化사적지</li> </ul>
--	---	---

(자료 : KNTC, 조사전산실)

### 3. 北韓의 觀光客 受用態勢의 前提條件 未備

北韓은 地勢가 險하고 標高가 높으며 겨울이 길고 날씨가 寒冷한 탓으로 내륙 지방은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한 住居환경도 불량하다. 그리고 높은 산, 깊은 계곡, 폭설, 혹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 암벽, 급류 등 자연환경이 불순하여 나쁜 住居與件, 交通不便으로 産業立地條件이 不良하다. 地域間, 都市間 交通網이 不備되고 수많은 고개, 터널, 교량이 협소하고 屈曲이 심한 道路事情은 産業發達, 物資輸送, 人的交流에도 相當한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북부)에는 이같은 地理的 惡條件으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다. 비교적 與件이 나은 西海岸 地域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産業이 발달한 편이다. 철도와 도로는 서해안 일대에 集中되고 南北으로 從斷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한편 동해안 지역에 面해 있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우도 철도와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역시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 내륙오지에는 도로망이 발달되지 못하고 높은 峻嶺과 綾線을 따라 道路가 開通되고 있어 交通난의 심각성과 불편, 안전도가 낮은 도로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北韓地域의 特殊한 地理的 與件때문에 內陸의 交通은 東西橫斷型 交通網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들면 北部地域인 압록강, 두만강 변경지역에는 서쪽 新義州에서 始作하여 동쪽 雄基에 이르는 기나긴 北部國境鐵道 부설계획을 推進하고 있다. 북한은 이 철도를 東西間 物資輸送을 위한 戰略鐵道로 構想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計劃되는 이같은 交通網은 有事時에 兵站線 구실도 함께 考慮한 것으로 判斷된다.

險難한 白頭山 南쪽 地域을 貫通하여 茂山에 이르는 高山地帶 鐵道工事を 推進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심각한 수송문제해결에 큰 난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가장 먼저 부설된 平壤←→元山 區間이 開通된지 오래 되었지만 이 鐵道の 輸送力에 限界가 있어 이 區間 南쪽을 따라 惡條件을 극복하고 最近에

平元 高速道路를 開通시켰다. 崔南단에 해당하는 東西연결 철도는 서쪽 황해도 長湍에서 출발하여 信川, 沙里元市, 新幕, 南川, 新溪, 伊川, 洗浦, 元山市를 잇는 또 하나의 戰略鐵道網을 構築하였다.

도로상태는 대체로 불량하여 비포장도로와 협소한 山間道路를 利用하고 있다. 고속도로구간(평양-원산, 평양-안주, 평양-개성, 원산-고성)과 간선도로(신의주-안주, 원산-청진)를 제외하면 地方間, 都市間 接近이 좋지 않다.

交通事情이 원활치 못하여 철도와 도로의 運行時間이 많이 消要되며, 겨울에는 더욱 심각한 交通난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평안북도, 함경도 내륙지방은 기나긴 겨울(5개월)동안 내린 폭설과 두꺼운 얼음으로 인해 解氷期(4~5월)에 山間地方에서는 봄철 大洪水와 山沙汰를 일으켜 交通이 두절된다. 여름철에는 산세가 가파르고 계곡이 깊어 장마철에 급류사태로 재해를 가져온다. 고산지대에는 年中 항상 기후가 자주 급변하면서 災害와 人命被害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金剛山 내륙에도 이같은 現象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自然的 與件이 지역간 소통, 人的 交流에 큰 制約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特히 觀光開發과 觀光客의 移動, 旅行者 輸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지역에 있어 관광측면의 제약요인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交通部門<sup>12)</sup>

### 1) 道路事情

北韓의 地形은 대부분지역에 걸쳐 交通망 발달에 制약을 가하고 있다. 觀光地, 名所, 景勝地로 接近하는 交通편은 여의치 못하다. 代表的 觀光地인 白頭山, 七寶山, 妙香山, 金剛山마저 交通難에 시달리고 있어 觀光客의 誘致와 輸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金剛山 觀光客 誘致를 위해 도로확장과 도로포장이 선결요건인 점을 認識하여 평양-원산-금강산 구간에 도로확장 포장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은 觀光交流提意, 觀光客 誘致를 하기에 앞서 기반시설 擴充(接近手段 改善)부터 始作하는 것은 당연한 順序일 것이다. 莫大한 投資가 所要되는 도로망 擴充은 그들의 당연

12) 韓國觀光公社, 前揭書, pp. 307~310.



과제이기도 하지만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 鐵道事情

북한의 철도사정도 도로사정의 경우처럼 粗惡한 편이다. 철도의 規格이 統一되지 않아 전지역에 걸쳐 廣軌와 狹軌가 共存하며 철도운행의 動力은 디젤油, 석탄, 전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어 에너지難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山間地方 철도는 협궤와 전철을 利用하는 區間이 있다. 一貫性이 없는 철도행정, 낙후된 철도운영방식은 물자수송과 여객수송, 나아가서 관광객 수송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유명관광지에 철도가 연결되는 곳은 없는 편인데 심지어 金剛山으로 직접 연결되는 철도가 없는 점을 考慮하면 능히 觀光客 輸送態勢를 짐작케 한다.

그들이 外國觀光客 誘致를 위해 宣傳하고 또한 開發을 試圖하는 代表的 名所들은 交通事情이 여의치 않고 大量輸送體系도 具備되지 않고 있다. 현재 평양, 개성, 원산, 해주, 남포, 신의주를 제외한 도시들은 現代的 交通手段의 利用便宜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國際列車가 모스크바, 北京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外國旅行者의 輸送은 크게 기대할 程度는 못되고 있다.

## 3) 沿岸輸送

東西海岸에 港口를 잇는 航路는 있으나 이들 항로는 旅客船 항로가 아니라 工業用 原資材, 貨物을 輸送하는 항로들이다. 최근 동해안 元山—高城 區間에 定期 旅客船을 投入하여 觀光客을 輸送하는 境遇를 제외하고는 沿岸 旅客船 航路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內水面 수송로(화물수송, 여객수송)는 大同江, 鴨綠江에 있고 큰 湖水에는 보트를 運行하고 있다.<sup>13)</sup> 觀光需要가 거의 없고 經濟的 所得에 바탕을 둔 餘暇文化가 不在한 북한에서 선박이용 여가활동이나 水上觀光을 기대하기 어렵다.

## 4) 航空輸送

북한에서 항공기 사정, 공항사정은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나쁜 편이다. 평양 공항, 順安공항, 청진공항을 제외하면 공항이 貧弱하고 한산하며 공항구실을 하

13) 金福萬, “北韓의 觀光資源과 觀光地 開發의 特徵”, 제주전문대학논문집 제11집, 1990. pp. 63~89.

지 못하고 있다. 國內線 定期 항공로는 순안-청진 구간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기운항을 하고 있다. 簡易飛行場은 소형 여객기와 觀光用 헬리콥터가 드물게 利用되고 있다. 軍用공항은 많으나 民間공항은 그 시설이 貧弱하여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主要觀光地에도 공항이 없는 실정으로 관광객의 신속, 안전한 여행보장은 어렵다.

國際線 여객기의 취항구간은 東歐圈(동베를린, 모스크바)과 中國 北京, 소련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에서 出發하는 制限된 便數의 여객기만 就航한다. 우리나라처럼 外國 20여개 이상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것과는 매우 對照的이다. 市場多邊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된 就航區域이 공산권에 치우치고 있어 自由世界와 航空路線 開設없이는 觀光客 誘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나. 旅行區域의 統制

북한은 內外國人의 여행통제가 심하다. 指定된 場所(都市, 特定場所, 觀光地), 지정된 시간, 제한된 시간, 事前 提示된 여행조건과 方式 등 여러 부문에 사전 통제, 許可, 감시(수행원 대동), 점검 등 유형, 무형의 제약이 많다. 주민들에게는 이보다도 더욱 까다롭고 철저한 사전 통제를 가하고 있어 특수한 여행(공무출장, 견학, 휴가여행, 관혼상제) 이외는 여행의 자유가 없는 실정이다.

觀光産業의 發達에는 入國後 旅行의 自由가 完全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住民과의 접촉방지와 북한체재의 허점을 공개하는 데 주저함을 보여,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旅行선전 프로그램에는 金日成 偶像化 상징물, 혁명전적지, 抗日투쟁 사적지 등의 施設과 場所를 外國觀光客에게 紹介하는 觀光資源으로 삼고 있다. 빛나는 歷史的 文化遺産은 제외시키고, 景勝地는 화려한 사진만 게재하고 실제 여행에 도움을 줄 內容, 情報은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觀光客을 誘致하기 위해서는 入國節次 簡素化, 入國後 自由로운 旅行保障(時間, 場所, 對象), 신변 안전보장, 행동규제 철폐, 숙박장소 완비, 교통편의 보장, 알찬 내용의 관광정보 제공, 관광안내체제 완비 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다. 旅行社의 自主性, 創意性 缺如

북한에는 國營旅行社인 朝鮮國際旅行社만이 存在한다. 이 여행사가 全地域의 觀光안내를 담당하고 對外的으로는 海外市場 開拓과 觀光宣傳을 수행하고 있다. 國營여행사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조직, 부족한 예산으로 대내외적으로 効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관료적 運營방식, 노동당의 지시 등이 여행업 발전의 阻害요인이 되고 있다.

여행사의 自發的 運營이 保障되지 않고, 여러 여행사에 의한 경쟁적 여행상품 개발 또한 없고, 외국여행사에게도 지정된 내용만을 소개토록 하고 있는 것은 觀光진흥과 外화획득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表 3-1> 北韓의 主要 海外宣傳物 現況

책 자 명	크기(mm)	페이지	언 어	비 고
조선(Korea)	340×260	32	英·佛·中·露·西 등 6개국어	화 보
오늘의 조선 (Korea Today)	250×185	96	〃	잡 지
조선 우표 (Korea Stamps)	〃	29	英·佛語	〃
조선의 무역 (Foreign Trade)	250×185	32	英·露·佛·日·서반어語	〃
조선직맹			英·佛語	
조선청년학생			〃	
조선여성			〃	
평양	290×220	304	英·露·中·佛·서반어어 日語 등	
금강산	290×210	200	英·露·佛·日·西語	
삼지연	〃	40	〃	
평양의 역사유물	220×175	58	英·佛·露·日·中·西語	
묘향산 역사유물	〃	44	〃	
인민의 낙원	290×210	224	〃	
백두산	150×100	10~2	英·佛·中·露·獨·아랍語	
원산	〃	0	〃	
함흥	〃	〃		
Tourism in DPR of Korea	200×250	26	英語	브로셔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4)

## 4. 北韓의 觀光開發과 觀光旅行의 當面課題

### 가. 北韓 周邊與件의 變化

북한 주변의 中國과 蘇聯은 開放政策追究과 西方世界와의 經濟協力(資本誘致, 經濟特區設置, 合作投資 等)을 推進하고 있다. 落後된 經濟開發과 近代化를 위한 措置를 物色하는 이들 나라들은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蘇聯은 西方世界 國家들의 極東地域 開發參與를 誘導하기 위해 각종 有利한 條件을 提示하고 있는데 시베리아, 사할린, 沿海州 지방이 되고 있다. 經濟特區를 開發하고자 물색하는 지역은 韓蘇國境線 넘어 핫산(Hassan), 블라디보스톡, 니흐드카 등 沿海州 지방이 가장 유망시되고 있다. 소련은 이 지역을 임산물과 수산물 가공, 원양어업기지, 중계무역항, 극동경제권 前進基地 造成에 目標을 두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화물은 이들 극동도시를 통해 수송해주는 輸送基地의 役割도 함께 推進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中國은 서방세계(한국 포함)의 中國進出을 誘導하고 海岸地方에 特區를 造成하여 企業과 資本을 유치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黃海 연안도시들이 交易增大에 對備하여 항만시설을 擴張하고 特區(山東省)를 조성, 合作投資와 外國기업유치를 計劃하고 있다. 滿州地域의 特區 設置計劃도 考慮에 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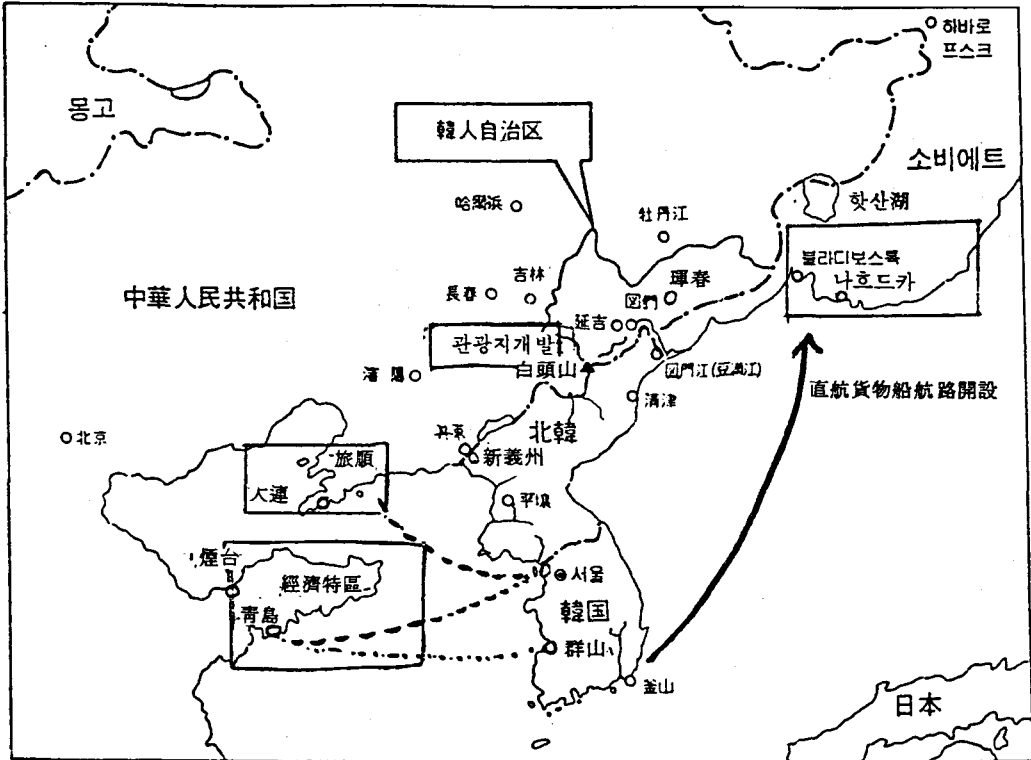
우리 교포가 많이 居住하는 吉林成 韓人自治區와 요동반도의 旅順, 대련지구(工業基地와 滿州地域 地下資源 輸送基地)가 特區 對象地로 될 可能性이 크다.

中國은 白頭山 너머 長白山脈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건설, 관광지 조성(스키장, 스케이트장, 온천, 등반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만주지역 長白山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白頭山 北部地域에 이르는 자동차도로 확장계획(1988~1990)을 吉林省 旅行局 主管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韓國도 유럽시장으로 수송되는 수출화물이 東海를 경유 소련 극동지구의 나흐드카港을 利用하기에 이르고 西海岸에서는 仁川과 群山에서 中國의 山東省의 연대, 청도, 만주의 요동성 여순 및 대련항구와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리라 본다.

이같은 한반도 주변의 변화는 북한에게 開發의 刺戟을 加하기에 充分한 環境造成이 되었다고 본다. (圖4-1참조)

〈圖 4-1〉 韓半島 周邊與件 變化



#### 나. 北韓의 異質的 體制와 思考

現實的으로 南北對話의 障壁은 北韓側의 閉鎖的이고 變함없는 政策과 意識構造이다. 公산주의 體制와 主體思想, 赤化統一戰略, 對外的인 敵對的 態度, 住民의 統制와 排外적 政策, 異質的 價値觀 등은 南北對話와 交流에 最大 障物이 되고 있다. 西方世界의 文化, 資本主義 意識構造, 民主主義 精神과 意識이 北韓으로의 流入을 極도로 警戒하는 北측의 態度에 變化가 없다면 南北協力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難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觀光에 대한 意識, 態度, 政策方向에 있어서도 南北한간에 상당한 거리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觀光」에 대한 해석을 북한공산주의에서는 “구경거리”로 보고 있고, 個人의 自

由로운 餘暇生活, 趣味生活, 레크레이션, 旅行, 休養 등은 관광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個人中心의 관광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多數人이 함께 참여하는 集體(集團을 의미함)의 행동만을 정당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어 소위 群衆文化의 형태를 띠는 근로자 中心의 群衆娛樂會(마스게임, 단체경기, 직장단위행사), 見學事業(단체입장의 극장, 영화관 관람, 박물관 사적지 구경 및 관람), 遊戲(레크레이션, 무용게임)등을 관광의 부류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소위 語學革命(北韓式 言語改造)이란 美名下에 우리 民族의 傳統文化, 文字, 日常用語, 地名을 대폭 개조하여 순수성을 잃게하고 있어 현재의 북한용어, 지명에 대하여 쉽게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많다. 用語表現의 異質感은 심각하다.

觀光을 非生産的, 頹廢的, 부르조아사상의 產物로서 비난하는 북한에서 진정한 관광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에는 관광을 對外宣傳手段(政治宣傳道具)으로 惡用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

관광홍보에 주체사상과 偶像化 施設을 크게 浮刻시키고 관광자원은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보면 관광객유치를 통해 국가홍보, 외화획득보다도 체제선전, 우상화 선전에 主目的을 두는 듯하다.

#### 다. 觀光旅行 靑圍氣 造成的 先決要件

地域間, 國家間, 分斷地域間 사람의 自由로운 往來許容과 制度的 保障은 분쟁예방, 긴장완화, 平和的 問題 解決에 도움을 준다. 敵對關係에 있는 北韓側이 우리 觀光客의 自由往來를 保障해주는 裝置가 先決되어야 하며 어떠한 구실로 旅行者에게 危害를 가하거나 신변위험을 주는 일이 없어야 觀光資源의 平和的 利用, 共同利用, 無害通行, 保障이 可能하며, 觀光交流 분위기가 성숙될 것이다.

이를 보다 具體化시키기 爲한 方案으로는

##### ① 北韓地域으로의 安全旅行通路(回廊地帶)設定

군사분계선을 觀光客들이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쌍방이해가 일치되는 原則이 定해지는 점에서 特定한 루트의 利用을 檢討해 볼 수 있다.

- 京元線의 복구 利用
- 東海岸 道路의 利用

- 遊覽船 취항 루트 건설
- 板問店—開成—延安—海州—載寧—張淵 루트
- 仁川—海州—웅진—長延—蒙金浦 해상루트

### ② 觀光特區 指定

以上の 陸路, 海路 觀光루트 開放, 開設이 實現되기 어려울 경우 休戰線의 어느 特定區域을 指定하여 북한측이 觀光지구를 開發하는 問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한 地域은 동해안 금강산 구역(530K ㎡)이 예상되고 판문점과 개성을 포함한 구역(사적지, 경승지)이 될 수 있다.

### ③ 投資與件 造成

북한은 觀光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合營法 제4조의 合作投資對象에 「觀光業」을 포함시켜 外國기술, 자본유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合營법의 내용에는 투자방식, 經營방식, 過失發生에 따른 利益配分, 課稅, 재투자 등에 모호한 점이 있다. 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市場性과 收益性이 보장된다는 점도 不確實하다. 북한의 觀光시장이라는 것은 現在로서나 가까운 將來에도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年間 수만명의 外來客 유치를 통해 기대되는 觀光 收入은 極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未備(항공노선의 不足, 海外市場 開拓과 觀光선전태세 미비, 안전여행보장 미비 등)로 外國資本家들의 投資를 유인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山川이 아름답고 名所가 많은 것만으로는 投資 環境의 充分條件이 되지 못하며 投資環境造成에 決定的 影響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觀光投資事業의 기대수익과 市場性, 收益性(採算性), 安全性이 保障될 수 있어야 合作投資나 資本유치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勤勞者와 農民이 觀光需要를 유발할 程度로 所得水準이 높지 못하고 이들을 對象으로 한 觀光사업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觀光사업을 發展시키고 觀光투자환경의 造成을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이 開放體制의 채택, 단계적으로 自由經濟체제의 導入(市場經濟의 原理), 敵對關係의 解消, 國家經濟의 平和産業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최소한 東歐諸國의 水準에 이르는 開放, 外國觀光客의 自由往來, 신변보장, 투자조건 구비, 수용태세, 確立이 이루어져야 한다. (表4-1 참조)

〈表 4-1〉

## 南北韓 觀光指標比較

	한 국	북 한
연 간 외 래 객	2, 340, 762 (1988년)	100, 000명 (인간추정) (이중관광객 3만명, 나머지 7만명은 두만강, 압록강, 월경 당일 귀환자 및 친지방문, 성묘객 추정)
관 광 호 텔	276개 호텔 객실 33, 869실, 특급호텔 49동 16, 327실, 단, 일반호텔 제외	30개 호텔 객실 8, 000실, 특급호텔 5동 5, 291실
여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여행업 158회사</li> <li>• 국외여행업 358회사</li> <li>• 국내여행업 1, 000회사</li> </ul>	국영여행사 1개소 (조선국제여행사)
여객기보유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 : 44대 (대형 11, 중형 15, 소형 18)</li> <li>• 아시아나 : 중형 9대</li> </ul>	조선민항 : 중형 17대
공 항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 : 3개소 (김포, 부산, 제주)</li> <li>• 국내항공 : 7개소</li> </ul>	국제공항 : 1개소 (순안) 국내항공 (간이항공) 10개소 (정기항공) 2개소 국내선 정기노선 : 순안-청진 구간
항 공 노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 : 39개노선 주간운항회수 145편</li> <li>• 외국항공사 : 43개노선 주간운항회수 141편 (14개 항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항 : 4개노선 (동구, 소련, 중국) 주간운항회수 7편</li> <li>• 외국항공사 (중국, 소련) : 4개노선 주간운항회수 (편도) 7편 (2개 항공사)</li> </ul>
국제정기여객선 취 항	2개노선 (한국-일본) 부산, 시모노세키, 오사카, 나가사키	



국제열차운행	—	3개노선(주간운행, 편도 7회) ○ 평양-모스크바 (시베리아횡단) ○ 평양-북경 ○ 평양-원산-청진-대동강 역-햇산-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철도
연안여객선운행	○ 카페리운항구간 4개노선 (제 주, 부산, 목포, 울릉도, 완 도) ○ 일반여객선항로 17개노선	원산-고성(정기여객선) * 금강산 관광객 수송
내수면유람선 운행 지역	한강, 남한강(충주댐), 소양강(소양호)	대동강, 수풍호, 대평만(압록강 하구), 두만강하구
관광열차	• 서울-경부선-경주(경주고 적관광) • 경부선구간(신혼여행, 피서, 단풍관광)	해산-삼지연(백두산관광)
대단위위락단지	9개소	2개소(대성산, 송도원)
골프장	41개소	2개소(평양, 묘향산)
스키장	6개소	2개소(백두산, 외금강)
관광휴양단지	5개소(경주, 제주, 설악, 충무, 남원)	4개소(원산 송도원, 통천 시중 호, 백두산 삼지연, 묘향산)
자연공원	국립공원 20개소	경승지 13개소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부전고원, 구월산, 장수산, 수양산, 금강산, 대동강, 명사십리, 몽금포, 동림, 개성)
유스호스텔	12개소	
콘도미니움	12개동(2,400실)	—

야영장	37개소	22개소
은천	28개소	52개소
해수욕장	105개소	7개소(송도원, 명사십리, 서해리, 남포, 와우도, 몽금포, 구미포, 용양포)
관광전문음식점	347업체	약 10개소 (평양시내 전문음식점)
국제회의용역업 (PCO)	9개업체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문제 연구소, 기타자료)

## 5. 結 論

觀光事業 分野는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餘暇時間이 늘어나는 先進國에서는 가장 脚光받고 있는 事業部分이고 觀光事業의 發達은 그 나라의 國益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어 觀光事業의 程度는 그 나라의 國民生活 水準과 生活패턴을 評價하는 尺度가 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硬直된 社會, 經濟體制, 住民生活 水準과 意識構造上 觀光事業, 自體가 育成되지 못했고, 觀光事業이 國益에 奇與하는 程度도 극히 적은 部門을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偶像化와 體制強化를 위해 實施되고 있는 革命史蹟地 建設, 이들 史蹟地에 對한 集團巡禮, 特殊階層을 爲해 마련된 休養, 靜養制度를 우리의 觀光事業과 같은 部門으로 본다면 北韓에도 內國人을 爲한 觀光施設과 觀光事業이 全無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國民觀光이라는 側面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最近에 이르러 北韓은 비록 外國人을 對象으로 한 것이지만 觀光資源을 開發하고 觀光施設을 建設하는 등 觀光事業이 關心을 보이고 있어 관광사업 不毛의 북한 지역에도 관광사업이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은 趨勢에 편승하여 우리가 對北 觀光合作 및 觀光交流의 提議는 時機適切하며 우리가 主張하는 南北韓間의 信賴回復,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에 크게 奇與하는 것이 되며, 實質的으로는 開放化 現場에 끌어들여 國際舞臺에 登場시키고 經濟的 合理性和 實益追究에 關心을 두게 하고 그들의 硬直된 理念과 好戰性을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土統一院, 「北韓의 觀光資源, 現況 및 開發實態」, 1982.
- \_\_\_\_\_, 「金剛山 이남과 雪岳山 이북의 觀光資源 實態調査」, 1982.
- \_\_\_\_\_,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989.
- \_\_\_\_\_, 「北韓經濟概觀」, 1988.
- \_\_\_\_\_, 「南北對話」제49호, 1990.
- 北韓研究所, 「北韓總監, 1983~1985년」, 1986.
- 尙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南北交流의 展望과 統一教育의 位相」, 1989.
- 國土統一院, “北韓의 觀光資源 現況 및 開發實態”, 1985.
- \_\_\_\_\_, “北韓의 文化財 保存 및 活用實態”, 1986.
- 金福萬, “北韓의 觀光資源과 觀光地開發의 特徵”, 제주전문대 논문집 제11집, 1990.
- Travel Trade Journal, 1990, 9.
- 한국관광공사, 「北韓地域 觀光資源」, 1989.
- 한국관광협회, 「月刊 觀協」, 1989~1990.